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북핵 위협 속 대립구도 고착화 우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에 빛과 그림자를 함께 던진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 명시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 우려 해소 기여했지만 대립구도 고착화=우선 '확장억지'와 관련한 부분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견제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 추구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 이 문구를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우리 정부의 중.장기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혁·개방'과 '체제 보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측면이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반면 현재 조성된 남북간의 대립 구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고착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 도중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미래비전 '양날의 칼' 될 수도

北, 내일 개성회담서 반발 표출 가능성

특히 한·미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키로 한 것을 계기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에 접근한다는 정신을 담은 6·15 공동선언이 더 이상 남북관계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없음이 명확해 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北반발 예상 남북관계 단기간 회복 어려울 듯=일단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일정한 수위에서 반발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 주목, 19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모종의 반발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측이 자신들의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를 일축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반발,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취지의 맞대응을 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중대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자체 동력에 의해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지금보다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다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 때 대남 접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브라질서 신종플루 '변종' 첫 출현

"치명적 바이러스 되나" 전세계 초긴장

브라질에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의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출현했다.

신종플루의 집중 타격을 입고 있는 남미 대륙이 독감 시즌인 겨울로 들어선 데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되던 중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환자가 급증, 신종플루 사태가 중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17일 AP·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 산하 아돌포 루츠 세균연구소는 한 환자의 몸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변종을 추출하고 '인플루엔자 A/상파울루/H1N1'로 명명했다.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대유행(pandemic) 단계로 들어선 신종플루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지 여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변종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종플루처럼 전염성이 강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AI)처럼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최악의 바이러스로 점차 변화하면서 1918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과 유사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바이러스가 중남미 지역에서 겨울을 견디면서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겨울로 들어선 남미 지역에서는 이미 위험스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겨울을 맞고있다.

아시아에서도 신종플루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에선 이날 109명의 감염자가 추가됐다. /연합뉴스

"北, 2곳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日 언론 동창·무수단리 진행중

북한이 북서부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와 북동부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은 모두 대포동 2호 또는 그 개량형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머지않아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위대 레이더를 동원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태가 긴박해 질 경우 요격 준비에 돌입하기로 하고 지대공 패트리엇(PAC3)의 수도권 및 간사이지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등의 분석에 따르면 ICBM 발사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동창리 기지 이외에 무수단리 기지에서도 역시 ICBM 기자재가 옮겨진 흔적이 발견됐다.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 분석을 통해 동창리와 병행해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수단리는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올 4월의 로켓 발사가 이뤄진 곳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무수단리와 동창리 가운데 한쪽은 실제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정보수집 활동을 교란시키기 위한 양동 작전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들 3개 기지에서 미사일이 연속 발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방위성은 이들 기지로부터 모두 발사가 이뤄질 것이란 것을 전제로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성은 금주 들어 지상 레이더인 FPS-3, FPS-5를 탄도 미사일 탐지 모드로 이행시켰다. /연합뉴스

성폭행 당간부 살해 여종업원 정당방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공산당 간부를 살해한 중국의 호텔 여종업원이 형사처벌 면제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중국 후베이성 바둥현 인민법원은 16일 당간부를 살해한 호텔 여종업원 덩위자오(21)에 대해 '유죄와 처벌 면제' 판결을 내렸다.

호텔 목욕탕 발안마사인 덩위자오는 지난 5월10일 손님 덩구이다(44)가 성폭행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덩위자오의 행동이 '고의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속하고 심경장애가 있으며 자수한 것을 인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